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나훔**

# 니느웨의 정복, 탈취, 파괴

(나훔 2:1~13)

원로목사이종윤



나훔서 2장은 니느웨가 몰락한 모습을 그림처럼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1. 불가항력의 힘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1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앗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바벨론의 군대가 니느웨로 올라올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앗수르는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느부갓네살의 선왕인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멸망 당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prophet)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장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언자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는 망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풍자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소용이 없을 터이나 해볼 때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치러 온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앗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성경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지들 없이 하였음이라”(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의 위신에 합당한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원수가 쓰러져야 회복될 수 있으므로 앗시리아의 멸망은 눈에 보이듯 분명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앗시리아에 의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듯 불쌍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3절).

붉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그들의 무기를 통해 앗시리아에게 심판 하십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5절).

바벨론의 군대가 번개같으므로 앗시리아왕은 정예부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급히 달려간 그들도 결

국은 승산없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 2. 니느웨의 파괴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7절).

나훔 선지자는 유대백성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것으로 앗시리아가 망한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갈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8절).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니느웨에서 살아보려고 사방에서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그 성으로부터 도망하며 서라고 하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직 견재할 때 담대하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런 그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앗시리아에 있는 금과 은을 노략하라고 하십니다(9절). 이것은 앗시리아가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해 온 것들입니다. 한 국가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11절).

전에 앗시리아에는 침략하여 빼앗은 것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굴에는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13절).

하나님께서 앗시리아의 대적이 되니 그들의 힘이 없어져 이제는 선전포고를 하기 위하여 이웃나라로 파견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앗시리아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교만을 파괴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자녀를 평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자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벌하는 심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아직도 구원의 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18년 교회 표어 및 행동지침, 5대 실천 사항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당회는 우리 교회 2018년 교회 표어를 제102회 총회의 표어와 동일하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로 정하고 행동지침과 5대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기 바란다.

### -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 - 5대 실천사항 -

1. 성경적 교회로 갱신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 되도록
2. 바른신학, 바른신앙, 바른생활 위에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3. 거짓과 위선의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충만한 삶을 살도록
4. 교회, 국가, 사회, 가정을 양심에 부끄럼없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5.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끊임없이 더욱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 2018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

유년·초등부 : 1월 25일(목)~27일(토), 아가페 타운  
중·고등부 : 1월 26일(금)~27일(토), 아가페 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5일(주) 3월 4일(주)	서울교회	카다쉬 놀이터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유년부	1월 25(목)~1월 27(토)	아가페타운	Stand up!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1월 26(금)~27(토)	아가페 타운	고통중애 (高痛中愛)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2월 8일(목)~10(토)	아가페 타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심우진 목사
청년2부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월 14일	주일	창세기 37~39		출애굽기 26~29	
1월 15일	월	창세기 40~41		출애굽기 30~34	
1월 16일	화	창세기 42~44		출애굽기 35~40	
1월 17일	수	창세기 45~47		레위기 1~7	
1월 18일	목	창세기 48~50		레위기 8~13	
1월 19일	금	출애굽기 1~4		레위기 14~17	
1월 20일	토	출애굽기 5~7		레위기 18~23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안성광/고영숙 윤성남 이강진 황선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노환(서울교회장로회)

## 연말정산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 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 농어촌 100교회운동 비전2020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그 동안 중단되었던 농어촌 100교회 운동(1구좌 10만원, 1/2구좌 5만원) 후원과 비전2020운동(1구좌 1만원) 후원을 2018년부터 다시 실시하며,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을 계속 후원한다. 후원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2018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 1교구 : 이옥수(1/2)
- 3교구 : 이신혜(김동준)(1) 박진주(1/2) 홍성미(1/2)
- 4교구 : 민의량(1/2) 윤용미(1/2)
- 5교구 : 하인선(남태순)(1) 김혜영(박은영)(1)
- 6교구 : 황병석(1/2)
- 8교구 : 유은경(1/2)
- 9교구 : 이종윤(홍순복)(1) 지성철(1/2) 오정수(이영희)(1) 광 숙(1/2) 신항범(1/2)
- 11교구 : 신아령(1/2) 오치열(1) 서명철(1)
- 12교구 : 오광환(1) 하혜심(1/2) 서상근(1) 최유현(1/2)
- 13교구 : 장창수(박혜정)(1/2) 윤명구(1/2)
- 14교구 : 송인덕(이홍숙)(1/2) 이상섭(1/2)
- 15교구 : 전광영(김인숙)(1)
- 권사회(3) 리브가 여전도회(2)

(다음 주 계속)

## 임명

우리교회는 서준권 목사의 사임으로 다음과 같이 인사 이동 및 부서 임명을 하였다.

- 4교구: 서명철 목사
- 5교구, 관리위원회, 소망부: 조원영 목사
- 6교구, 교육위원회, 장학회: 장석남 목사

# 소위 관상기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비본질적인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횡행하는 이 때,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관상기도에 관한 글이며 필자의 허락을 받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김성봉 목사  
(한국 성서대학교 초빙교수)

“

**관상기도는 침묵기도에서 파생된 새로운 양태의 이방 종교의 인본주의적 기도 형태이다**

.....

**초월적 명상행위와 그 차이가 없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신영지주의, 뉴에이지로서 장차 종교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되는 비성경적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

의 음성을 들었다(왕상 19:1-18)는 내용도 관상기도를 지지하는 성경적 증거본문으로 제시한다.

## 2. 관상기도에 대한 비판

관상기도에 날을 세우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목사들중 어떤 이는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의 자아 최면형상이다. 이것은 이교도 명상 도입에 기독교형의 탈을 쓴 비성경적 방법이며,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며, 관상기도수련회는 주로 미국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적 수도원에서 열리며, 관상기도를 멘토하였던 영성가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발견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관상기도는 진리의 사각지대, 관상기도를 즐기는 님들에게, 김삼 목사 저).

한국교회에 관상기도를 도입한 모 목사를 영적으로 지도한 문제의 살렘 인스티튜트는 종파를 막론하고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관상영성을 보급해온 단체다. 표면상 그럴듯한 기독교 단체 같지만 한꺼풀 벗기고 보면 '종파'만이 아닌 '종교'의 경계를 자유롭게 초월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관상기도가 동양적 신비주의 사상과 가톨릭 신비주의를 물려받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미국 툴립신학교의 K교수도 관상기도에 대하여 꾸준히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항상 이상한 교리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어 전국에 퍼진다고 한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

스앤젤리스 근처 아주사 대학의 리차드 포스터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정통기독교와는 다른 소위 명상영성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서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빛나간 영성운동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관상기도를 하는 이들은 시편 46:10, 왕상 19:1-8, 마 5:3, 요 14:10, 20, 17:21, 롬 8:26-28, 계 3:20 등의 말씀을 제시하며 성경 속에서의 관상기도를 말한다. 그러나 시편 46:10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안식하라는 것이지 기도로 조용히 관상하라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설령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면서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관상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성경의 전후 문맥에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며 본문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지 관상기도와 연결된 훈적이 없다.

왕상 19:1-18에서 '세미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세미한'이란 말은 물리적인 외부의 것들이 조용하다는 것이지 엘리야가 조용히 관상기도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5:3의 제시에 대해서도 본문의 빈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 정욕, 물욕 등의 생각을 갖지 않고 정결한 심령으로 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겸손히 선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만을 구하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겸비한 모습으로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행 2:28).

요 14:10, 20, 17:21의 제시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을 동거동행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롬 8:26-28의 제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탄식함은 죄 때문에 죄로 얼룩진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구촌의 상태를 탄식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관상기도의 의미를 끼워 삼입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해석은 참으로 황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 3:20에서 주님과 연합의 방법이 침묵이라는 것은 관상가들의 자의적 해석이다. 결국 지금까지 관상기도 주창자의 성경인용과 다른 곳에서의 실제적 행위를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본질을 떠난 것이다. 관상기도는 침묵기도에서 파생된 새로운 양태의 이방 종교의 인본주의적 기도 형태이다. 침묵만 하려 들고, 거기에 인도의 명상과 만트라(주문)식으로 짚은 내용을 반복하여 중언부언하는 것은 분명 이교도의 명상에 말씀 몇 구절을 얹어 놓은 것으로 초월적 명상행위와 그 차이가 없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신영지주의, 뉴에이지로서 장차 종교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되는 비성경적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다음주 계속(편집부)

성도의 기도 가운데는 부르짖는 기도에 비하여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하늘을 향하여 달라고만 하는 기도에 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 온 관행을 넘어 성경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흔히 있어 온 기도 행태는 한편으로는 부르짖는 기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달라는 기도였다. '주여!' 삼창을 외치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했고 이렇게 하지 않는 기도는 뭔가 간절함이 없는 듯이 여겨졌다.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만 참된 기도일까?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반드시 달라고 해야만 기도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는 없을까?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와 아울러 조용히 묵상하듯 하는 기도도 아울러 지지하며, 달라고 하는 기도와 아울러 주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도 아울러 지지한다.

## 1. 소위 '관상기도'에 대한 변호

우리 주위에 비교적 건전하다고 여겨지는 분들 가운데 관상기도를 주창하면서 관상기도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바라봄'의 기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기도라는 설명이다. 가톨릭적인 전통에 따른 기도형태지만 어떤 목사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분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관상기도를 굳이 가톨릭의 기도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과 같다면 관상기도는 영적 안식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전쟁만 할 수 없고 쉬이 필요하듯 기도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 교회는 관상기도를 통해 기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영혼의 고요함과 깊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관상적 묵회자)을 인용하면서 묵회자는 밖으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이사야서 30장 15절에 근거해 책망한다. 또한 시편을 제시하는데, 시편에는 관상기도의 성경적 근거 구절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시 46:10에서 '가만히 있어'의 영어 표현은 'be silent'로서 침묵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엘리야의 경우를 예시하기도 한다. 엘리야가 호렘산 동굴에서 '세미한' 하나님



# 여름선교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대진중앙 교회를 섬겨주시는 서울교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를 뒤돌아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올 한해도 어김없이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으로 허락하여 주었기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대진 땅으로 의료팀을 보내주시고 전도 팀과 이미용, 청년들과 함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고하여주신 봉사자들과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사역을 통해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명이 세례를 받고 이번 성탄절에 1명이 세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매년 진행되었던 여름선교사역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기에 어려움 지역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시간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서울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시골교회도 복음이 전하여 지면 희망이 있음을 배워갑니다. 시골목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친밀함을 가지

고 마을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교회로 다가가고 있음을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음세대를 준비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고 그리고 같은 마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돕고 동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부지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전교인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으로 함께 시골목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서울교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새해, 성령 충만한 새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김춘기 목사 드림

## 2018년을 이끌 일꾼들에게 듣는다

###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발판이 되도록



임중현 집사 (청년2부 회장)

살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역대 회장 그 어느 지체보다도 나은 것 없

는 사람이 '18년도 청년 2부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를 세우시며 든든히 돕는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함께 세워 주셨습니다. 최근 1년 저희 청년부는 여타 부서와 다를 바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청년 1부와 2부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약 2년이란 시간 동안 기도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한 청년 예배는 작년 2017년 1월 15일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날의 충격은 교회를 떠난 지체와 남은 지체 모두에게 똑같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해 미련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재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뿐입니다.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금 회복의 바람은 불어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서울교회는 귀한 한 세대를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가 그 발판이 되도록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정

- 수상 : 13교구 김정미 권사 '미추한인이민 115주년 우표대전' 미주예총장상 선정 1.10 - 1.15 위싱턴 상원의원 빌딩
- 금주의 식사 : 이경진 집사(하영인 집사(하은, 하훈)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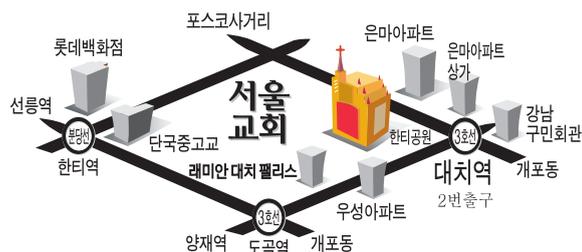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순결서약을 한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3.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비전 이루어지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본당
	II부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예배	II부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영상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